



"알고 있는 일일수록 더욱 명치에 가뉘야 한다"

뜻: 아는 것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, 입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신중 · 비밀 · 절제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알	고	↓	있	는	↓	일	일	수	록						
더	욱	↓	명	치	에	↓	가	뉘	야	↓	한	다	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알	고	↓	있	는	↓	일	일	수	록						
더	욱	↓	명	치	에	↓	가	뉘	야	↓	한	다	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][ㅅ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[ㅇ]

웹에서 보기

